

직업교육 개혁방안 업계에 시사하는 바 크다

사설 제과 학원가(學院街)에도 새물결 일 듯

교육부는 지난 5월 31일 '직업교육 개혁방안'을 마련, 심도있는 연구와 아울러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제과산업 분야는 물론 각 산업분야 그리고 교육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근본 목적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기술인력을 양성, 경쟁력을 조성하는 동시에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절경이 바로 직업교육의 개혁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강력히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부터는 직업교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직업교육 개혁방안의 골격을 보면, 매년 10만명씩 배출되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아무런 직업적 준비도 없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데 반해 진학시기를 잃고 산업현장에 진출한 이들은 학습기회에 대한 갈망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측에 무용했던 교육을 유용한 교육으로 바꾸어 이른바 산학협동 체제를 이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목표달성 연도를 2천년으로 보고 전문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 설립에 있어서도 그동안 까다로왔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어서 제과산업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어떻든 직업교육 개혁방안이 실현되고 따라서 전문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이 용이하게 될 경우 전국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설립한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는 한 차원 발전된 전문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기술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인을 육성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고 선진 수준으로 업계를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도 전문대학 설립의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업계에 주어진 과제이며 1만 6천여 제과업자의 명예와 결부되기에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업계 변화의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97년으로 예정된 학원시장의 개방이다. 정부는 당초 개방시기를 98년으로 잡았으나 최근 이를 1년 앞당기기로 결정, 제과학원가에 새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오랜 역사와 명성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코르동 블루'란 제과 및 요리학원이 국내 건설업체인 '청구'와 손을 잡고(본지 베이커리뉴스 6월호 참조) 이미 베이커리사업에 진출, 국내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도 앞서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각국의 제과 기술 학원이 국내에 상륙할 것임은 명백하다.

결국 내년 벽두부터 전문대학설립 문제를 비롯해 사설 제과학원간의 경쟁 심화라는 두 가지 문제가 업계 전면에 부각될 전망이다. 빗장이 풀린 이 시대가 분명 무한경쟁시대임을 새삼 절감하면서 다시 한번 회원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